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역명 공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18개 역에 대해 '역명 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시철도 역명 제정 기준 및 절차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광주 시민 누구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광주온(ON)'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각 역 사 반경 500m 이내 주민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거주지 인근 정거장 역명에 대한 의견을 오프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설문은 2호선 1단계 18개 역 전체를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오프라인 설문은 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3월 3일부터 13일

3월 2~15일 2주간 시민 의견 수렴... 6월 최종 고시 예정

1단계 구간 18개 역 대상... 환승역 상무역·남광주역 제외

까지 주말을 제외한 9일간 실시된다. 설문은 광주시가 제시한 역별 3개의 역명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의견 수렴 대상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전체 20개 역 중 1호선 환승역인 203정거장(상무역), 214정거장(남광주역)을 제외한 18개 역이다. 두 환승역은 기존 1호선 역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광주시는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시·자치구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시 전광판 및 빛고을TV, 광주교통공사 역

사 내 게시판, 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 자치구 지명위원회와 광주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립국어원에 로마자·한자 표기 자문을 의뢰할 예정이다. 6월 중 최종 역명을 확정·고시한다.

문점환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역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중요한 이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초고령사회, 맞춤형 노인복지로 삶의 질 높인다

여가-문화 공동체 조성으로 어르신 사회참여 확장

광주 동구는 노인 인구 비율 24.8%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복지를 구성 핵심 과제로 삼고, 정서 안정과 일자리 지원, 복지 정책 강화를 축으로 한 종합 노인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동구는 높은 노인 인구 비율을 지역의 도전이자 새로운 기회로 보고, 단순 돌봄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사회 참여, 경제 활동까지 지원하는 입체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방침이다.

올해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핵심 과제는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쉽고 즐거움이 머무는 행복 경로당 운영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 등 세 가지다.

●65세 이상 450명 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동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계획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춘 평생 취미-배움 모임인 '백년동아리', 고전과 최신 영화를 함께 감상하는 '명화극장',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 교류를 돕는 '노래교실' 등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오카리나·우쿨렐레·하모니카 등 악기 프로그램 ▲굿모닝 활력운동·요가 등 건강 프로그램 ▲수채화·뜨개·서예·캘리그래피 등 예술 활동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자존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힘쓴다.

또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커피바리스타, 그라운드골프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역량을 강화한다. 동구는 이들 프로그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배움으로 시작된 인연'이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생적 여가 커뮤니티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경로당 127개소, 주 3회 무료급식...마을플랫폼 기능 강화

동구는 경로당을 단순한 쉼터를 넘어 식사와 돌봄,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관내 경로당 127개소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월·수·금 주 3회 무료급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함께 식사하는 과정을 통해 고독감과 우울감을 완화하고 이웃 간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복지시설 안전·인권 관리 강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지도점검, 장기요양기관 지정·관리도 강화한다. 정기 점검과 긴급 보수를 통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매뉴얼 정비와 종사자 교육을 통해 종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노인학대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서비스 질 모니터링과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병행해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다.

●맞춤돌봄 고도화·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신규 도입

기존 정책도 내실 있게 보장한다.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세밀한 관리 체계로 고도화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입원 후 퇴원해 가정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주민에게 사유와 위로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문학 프로그램 '상록별빛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여행·예술·심리학 등 다양한 주제로 작가 강연을 마련했다. 강연은 평일 저녁과 주말에 운영해 직장인과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첫 강좌는 임택 여행작가의 '마을버스로 세계 한 바퀴'이다. 이후 ▲3월26일 오후7시 정우철 도슨트의 '내 인생을 바꾼 명화 한 점' ▲4월30일 오후7시 문요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감

서구 상록도서관, 인문학으로 '쉼' 제공

5월까지 여행·예술 등 주제로 작가 강연 마련

정을 마주하면 깊이 보인다' ▲5월16일 오후2시 김신지 작가의 '제철에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자 모집은 매일 17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서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도서관과(062-350-4593)로 문의하면 된다.

김신아 도서관과장은 "상록별빛학교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주민이 스스로를 돌보고 쉼을 경험하도록 기획한 프로그램"

이라며 "책과 사람, 이야기가 만나는 상록별빛학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24년부터 상록도서관 BI(Brand Identity)인 '쉼, 문화'와 연계한 상록별빛학교를 통해 미술·뮤지컬·취미·북강스 등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와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4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27일까지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주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정책이다.

다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나 마을공동체가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를 실현하거나 마을에 발생한 갈등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북구, '2026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27일까지 서류 접수... 전문가 심사 거쳐 최종 74개 사업 선정

올해 북구는 예산 4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북구형 의제 해결 ▲마을공동체 활성화 ▲마을사업장 새로고침 ▲마을 브랜드 육성 ▲소통방 지원 ▲마을 재난 대응 등 6개 분야 7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마을 재난 대응 분야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민주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마을 재난 예방과 신속 정

확한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재난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자연 재난, 방범, 소방, 보건 등 마을의 취약점을 파악한 후 대응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하고 모의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공모는 오는 27일까지 제출된 서류를 주민 참여도, 사업 실현 가능성 및 효

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종합 심사한 뒤 오는 4월 중 지원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별 예산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공모와 관련된 문의로는 북구청 주민자치과(062-410-6166)로 하면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마을의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는 일이 진정한 주민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도하는 북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 전반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전라남도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와 시설 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안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식품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

전남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안전·즐거움 외식문화 정착

3월부터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 위생 강화 등 사전 안내

작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준수사항은 ▲조리장 등 식품 취

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 통제 관리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유지 ▲이물질 혼입 방지 뚜껑·덮개 사용 ▲반려동물용·손님용 용품 구분 사용·보관 ▲반려동물용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이다.

영업자가 사전검토를 원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신고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레르기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비반려인을 포함, 누구나 출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염선호 기자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